

<10월 10일 토요일 법회 식순>

- * 1부 : 사시헌공
 ♪ 찬불가 연습
-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신도회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
 - 청법가
 - 법문 - 십선업도(정각원장 해주스님)
 - 새신도 환영
 - 합창단 음성공양
 - 정근
 - 발원문 봉독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법회주제	법사
10.17(토)	불교신행	법성스님 (김천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10.24(토)	불자와 건강	태석기 교수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10.31(토)	사찰순례	교법사 진우스님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금일 불교아카데미는 수시 논술 고사로 휴강합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에 드립니다>
-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대각전 원불봉안 안내>

염원을 담아 願佛 봉안하시고
기도성취와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세요.

1人 1佛 - 100만원 이상(분납가능)

금년 봉안 법회는 12월 5일(토)에 봉행하오니 원불봉안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故 박세원 학생 49재 막재

구파발 경찰 총기사고 희생자 故박세원 학생
(철학과 2학년)의 왕생극락을 기도합니다.

일시 : 10월 12일(월) 10시
장소 : 정각원 법당

많은 기도 동참 바랍니다.

보시동참

☎ 9월 19일 불전 공양 ☎

₩1,644,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보광스님, 강은희, 구리시효자봉비어, 김은길, 남대문
효자손만두, 백민지, 윤성렬, 윤호문, 이기형, 이민기,
이정하, 이정화, 이진희, 제효령, 주호빈, 주호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780,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 기도 ☎

김영대, 이명훈, 이봉자, 함영란

☎ 공양 보시 ☎

- ❖ 불단 과일 : 수미희
- ❖ 불단 떡/대중공양 : 이순자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일부터 점심공양금 1,000원을 받습니다.

남인도 선재 구법 여행을 함께 해요!

福城에서 普陀洛伽山으로! 용수보살 고향과 달마대사 향지국 경유

- 순례기간 : '15년 12월 23일 ~ '16년 1월 1일(10일)
- 지도법사 : 정각원장 해주스님
- 동 참 금 : 3,090,000원(현금할인가)
- 일 정 : 델리→비자야와다→아마라바티→넬로어→첸나이→간치뿌람→
마말라뿌람→마두라이→간야꾸마리→알라피→사브리말라→코치→델리
- ☎ 정각원 행정팀 2260-3016~9 ☎ 아제 여행사 02)730-4008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0월 10일

제305호(週刊)



일어나 앓아라. 그대들에게 잠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앓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숫타니파타]

동불 연꽃제

수계법회·포살법회



◎ 6일(화)~7일(수) 교내 팔정도에서 불교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동불 연꽃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꽃제는 재학생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 불교를 홍보하고 포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봉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장스님과 불교대학장 스님께서 참석하신 입제식을 시작으로 염주와 연꽃, 만다라 책갈피 만들기, 차담상담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 9월 22일(화) 정각원장 해주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신임조교 17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학업과 더불어 조교소임을 맡은 재학생들이 신행의 첫 단추를 끼는 뜻 깊은 법회가 되었습니다.

◎ 24일(목) 종호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재학생님들은 지혜와 자비로 못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될 것을 거듭 발원하셨습니다.

추계 사찰순례 안내

사찰순례와 함께 방생기도를 하며 자비회사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아요!

- ❖ 일 시 : 불기 2559. 10. 31(토) 08:00~17:30
- ❖ 장 소 : 충남 서산 간월암, 보원사지, 서산마애삼존불
- ❖ 참가비 : 50,000원(방생기도 비용 포함)
- ❖ 인 술 : 교법사 진우스님
- ❖ 대 상 : 정각원 신도(선착순 접수)

☎ 2260-3017~9



십선업도 十善業道

정각원장 해주스님

1. 재가자의 계율과 윤리·도덕 덕목

- 시·계·생천(施戒生天) 법문
- 재가 5계와 우바이 8계
- 십업(十業) - 악업과 선업

2. 대승보살의 계(戒) 조목

- 대승보살과 원생(願生)
- 『화엄경』의 원력과 계율
- 『범망경』 보살대계

3. 화엄십지의 지계바라밀과 십선업

- 제2 「이구지」의 지계바라밀
- 십선업의 내용 → *경문1
- 십선업의 과보 → *경문2
- 십선업의 공덕
 - 대해 비유
 - 법의 동산에 안주
 -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

* 경문1(지송한글화엄경 pp.103-105)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생을 멀리 여의어서, 칼이나 작대기를 두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어 인자하고 용서함이 구족하여, 생명있는 일체 중생에게 항상 이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뇌롭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저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면서 짐짓 거치른 마음으로 살해할까보나.

성품이 흠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재산에 만족함을 알고 다른 이에게는 인자하고 사랑하여 침노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소속한 물건에는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 흠치려는 마음이 없고, 풀잎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거늘, 하물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리오.

성품이 사음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아내에 만족함을 알고 다른 처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처첩이나, 다른 이가 보호하는 여자에게 탐하는 마음도 내지 않거늘 하물며 종사하리오.

성품이 거짓말하지 않나니, 보살이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꿈에서라도 덮어 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며, 하려는 마음도 없거늘 하물며 짐짓 범하리오.

성품이 이간하는 말[兩舌]을 하지 않나니, 보살이 이간하는 마음이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으며, 이 말로써 저를 파괴하기 위하여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말로써 이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에게 말하지 않으며, 아직 파괴하지 않은 것을 파괴하게 하지 않고, 이미 파괴한 것은 더 증장하지 않으며, 이간을 기뻐하지 않고, 이간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간할 말을 짓지도 않고, 이간하는 말은 실제거나 실체가 아니거나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성품이 나쁜 말을 하지 않나니, 이른바 해롭게 하는 말, 거치른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성내게 하는 말, 앞에 대하는 말, 앞에 대하지 않는 말, 비속한 말, 버릇없는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이가 기쁘지 않는 말, 분노의 말, 속 태우는 말, 원한 맺는 말, 뇌롭게 하는 말, 좋지 않은 말, 달갑지 않은 말,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등은 모두 버리느니라. 그리고 항상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뜻에 맞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이 기뻐하는 말, 남의 마음에 드는 말, 운치있고 규모있는 말,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 몸과 마음이 희열한 말을 하느니라.

성품이 번드르르한 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 시기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의로운 말, 법에 맞는 말, 도리에 따르는 말, 교묘하게 조복하는 말, 때에 맞추어 요량하여 결정한 말을 좋아하느니라. 이 보살이 웃음거리라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거늘, 어찌 짐짓 산란한 말을 하리오.

성품이 탐욕부리지 않나니, 보살이 남의 재물이거나 다른 이의 생활용품에 탐심을 내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느니라.

성품이 성내지 않나니,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한 마음·이익하는 마음·가없이 여기는 마음·환희한 마음·화평한 마음·포섭하는 마음을 내어 길이 성내거나 원한을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이익하려는 일을 생각하여 행하느니라.

또 성품에 샛된 소견이 없나니, 보살이 바른 길에 머물러서 점치지 않고, 나쁜 계를 가지지 않고, 마음과 소견이 정직하고 속이거나 아첨하지 않으며, 불·법·승에 결정한 신심을 내느니라.

* 경문2(지송한글화엄경 pp.105-107)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열 가지 선한 법[十善業道]을 행하여 항상 끊임이 없느니라. 열 가지 나쁜 업[十不善業道]이 상품은 지옥의 인(因)이 되고, 중품은 축생의 인이 되고 하품은 아귀의 인이 되느니라.

살생한 죄로는 중생들이 지옥·축생·아귀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둘은 병이 많으리라.

흠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빈궁하고, 둘은 재물을 함께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사음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고 뜻에 맞는 권속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말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비방을 많이 받고, 남에게 속게 되리라.

또 이간하는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족들이 험악하리라.

나쁜 말 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다투는 일이 많으리라.

번드르르한 말을 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사람들이 제 말을 곧이 듣지 않고, 말이 분명치 못하리라.

탐욕한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으리라.

성낸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남의 해침을 받으리라.

또 샛된 소견을 가진 죄로는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샛된 소견을 가진 집에 나게 되고, 마음이 아첨하고 굽으리라.

불자여, 열 가지 나쁜 업은 이렇게 한량없는 큰 고통을 내게 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마땅히 열 가지 나쁜 길을 멀리 여의고, 열 가지 선한 길로 법의 동산을 삼아 편안히 머물면서, 다른 이도 거기 머물도록 권하리라.